

뗀 채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비운아가 된 것이다. 〈중략〉 안개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는 아버지와의 만남은 6번 정도로 기억된다. 〈중략〉 한산 스님 손에 이끌려 열 살에 화엄사 주지 서동월 스님에게 가 머리를 깎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절과 처음 만나 청소를 하며 스님들 고무신도 닦아 주며 염불을 외우면서 살게 되었다. 또다시 한산 스님을 따라 연곡사로 가 잠시 머물다 피아골을 거쳐 지리산으로 올라가니 서울에서 아버지한테 놀러 갔을 때 보았던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현상 선생이었다. 〈중략〉 1953년까지 지리산에서 산사람들과 눈, 비, 바람을 이불삼아 무술과 행공을 연마하면서 모진 훈련 속에 나는 3년을 지냈는데, 이현상 선생이 '저 아이는 살리라' 고 한산 스님에게 부탁하여 스님은 나를 데리고 국군토벌대의 눈을 피해 지리산에서 하산하게 되었다. 한산 스님은 금릉 청암사로 나를 데리고 가서 4년간 강고봉 강백에게 사교까지 배우게 했다. 나는 새벽과 밤중엔 무술과 행공을 연마하면서 격동의 험한 시대를 살아오게 됐으며 그동안 사용한 이름만도 병삼, 유동, 세원, 현준, 일우, 명초, 성진, 혁, 원경 등을 더하여 14개의 이름을 쓰면서 살아오게 되었다. 〈중략〉 한산 스님은 송담 큰스님만이 너의 한 많은 생을 승화시켜 제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60년도에 송담 스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남다른 운명을 타고 태어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견뎌야 했던 아픔들이 담담하게 기록된 '나의 이야기'. 어쩌면 이 이야기는 원경 스님의 이야기이면서 아직 가족을 남과 북에 두고 가슴을 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못 다 부른 노래〉다.

"인생이란 게 누구나 그렇게, 못다 부르고 가는 노래 아니겠어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결코 간단하게 들리지 않았다. 스님의 삶을 이끌어준 한산 스님은 "저항적인 언구가 많으니 앞으로는 글 쓰는 것을 삼가라"며 스님이 시 쓰는 일을 못하게 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낙서하듯 메모하는 것을 좋아했고 백석의 시집을 품고 읽었던 스님이고 보면, 그렇게 말린다고 그만둘 일이 아니었다. 출가 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살 수 없는 여러 환경이 스스로 생각을 메모하고 한편한편 시로 정리해 나가도록 했을 것이다.

어디서 문학 이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를 통해 등단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이 삐쳐 나오듯 돋아나는 생각의 자투리들을 모으고 정제한 것이 스님의 수행이었던 것이다.

"수행의 과정에 건져 올린 생각들이니 이 시들이 곧 스님에게는 오도송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경 스님은 크게 손사래를 치며 '그저 낙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원경 스님의 시들은 '시(詩)'라는 한자어를 파자한 그대로다. 언어(言)의 도량(寺)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깨침의 편린들 말이다. 그래서 김지하 시인은 스님의 시집에 새로운 장르의 명칭을 붙여주었다.

"선재남류(善財南流) 직전 동자소(童子所)에서 문수사리가 동자, 동녀, 우바이, 우바새 오천에게 나누어준 화엄시집(華嚴詩集)"

'화엄시집'에서 시 한 편, '백일홍'을 함께 읽어보자.

남 먼저 살짝 핀 진달래꽃처럼
백일홍은 큰 인상이 없다 하리라
꽃 중의 꽃 목단 꽃처럼
백일홍은 화려하지 않고
너무 수수하다 하리라
그러나 봄에 피어 붉디붉고
긴 여름 한 철 붉디붉고
늦가을 찬 서리 바람
마지막 순간까지 붉디붉은 백일홍
너는 언제나 꽃이더라
나는 빌었네 꽃이라면
우리들 모두 백일홍이기를

글 · 사진=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만해용운(萬海龍雲1879-1944)③

이상과 현실에 걸림 없이 걷다

만해라는 대심(大心) 보살은 일찍이 〈유신론〉에서 불교의 이념적 지향점을 평등주의와 구세주의(救世主義)로 나눈 바 있다. 거기에서 구세주의를 설명하면서, "나는 마땅히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세계와 일체 악취(惡趣) 중에서 영원토록 일체의 고통을 받으리라.", "나는 마땅히 저 지옥 · 축생 · 염라왕의 처소에 이 몸으로써 인질을 삼아 모든 악취의 중생을 구속(救贖)하여 해탈을 얻게 하리라"는 〈화엄경〉의 구절을 인용해, 부처님 말씀이 한 게송도 구세의 일념에서 벗어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구세의 일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포교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곧, "조선불교가 유린된 원인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며,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승려는 불교의 세력을 키워 나도 구하고 나아가 중생을 제도함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길이 바로 '포교'이다"고 주장했다.



백담사의 만해 시 비.

오늘날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해의 승려취처론 역시 이 같은 포교의 중요성 강조라는 맥락에서 읽으면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다. 승려의 취처를 허용하자는 주장의 근거 넷 중에 두 가지를 각기 '포교'와 '교화'에 이롭지 못하다는 점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교와 교화를 통해서 세력을 키우고, 다시 그 세력이 자유를 보호하는 '신장(神將)'이 된다는, 〈유신론〉에 나타난 만해의 생각은 적자생존의 논리에 근거한 사회진화론적 사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다. 비록 적자생존의 논리에 기반하고는 있지만 불교의 지향점이 구세제민(救世濟民)에 있음을 끝끝내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은 1937년 '역경(譯經)의 급무(急務)'라는 논설에서도 초지일관 유지된다. 이 논설에서 만해는 "조선불교의 유신 이래 교육으로, 포교로, 기타 모든 방면으로 다소의 진보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역경에 있어서는 요요무문(寥寥無門)"이라 지적하면서, 조선의 낡은 불교가 그나마 명맥을 이었던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고대소설(古代小說)이고, 하나는 걸승(乞僧)이다.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 쓰여진 구소설(舊小說) 중에 불교신앙에 관련된 것이 태반인데, 압력 때문에 불교를 전할 수 없었던 불교도들이 고심참담 끝에 내놓은 포교방편이며, 덕분에 불교의 맥이 이어졌다는 것이 그 첫째이다. 둘째는 조선 승려의 걸식인데, 비록 그것이 청정걸식은 아니지만, 걸승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민가에 불교에 대한 관념이 이어졌고, 덕분에 염불이나 주문, 회심곡이라도 전해져 불교의 명맥을 잇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제시대보다 훨씬 더 압박받던 조선시대에도 한 가닥 숨길을 찾아 불교를 전도하길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고, 그 때에도 민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전도의 요체였다는 설명이다. 곧 역경을 통해 민중이 알아듣는 소리, 알아보는 문자로 전해야만 하는데, 아직도 한문으로 된 불전이 태반이라 구세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만해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救世)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승려로서 어느 누가 구세(救世)를 말하지 않겠는가마는, 그 구세를 실천하는 방법은 각기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해의 구세실천의 구체적 방법론은 포교를 통한 구세(救世), 그리고 그것의 효율적인 성취를 위한 포교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통치의 강압이 더해가던 시절, 불교계 내부의 좌절과 분열이 거듭되던 때, 집도 절도 없던 만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등지고 북향집을 짓는다. 심우장. 그 곳에서 만해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일제의 막바지, 이 민족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고만 있어야 했던 그는 봄날의 매화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스스로 돌이켜 묻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되새겨 묻는다.

"나는 왜 승이 되었나? 내가 태어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나를 승이 되지 아니치 못하게 하였던가. 또는 인간세계의 생사병고 같은 모든 괴로움이 나를 시켜 승방에 몰아넣고서 영생과 탈속을 속삭이게 하였던가. 대체 나는 왜 승이 되었나, 승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였나, 또 무엇을 얻었나, 그래서 인생과 사회와 시대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을 하여왔나."

우리도 이 말을 받아 곰곰 되새길 일이다. 우리는 왜 불자가 되었나? 시대를 새김질하지 못하면, 구세의 서원 또한 멀어질 것임에, 만해는 끝내 세상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현지사 소개 그 일곱번째 주제 - 관음태교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를 원하시나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인류의 사표가 될 성현을 원하시나요?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만현 큰스님

10개월의 태교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촉하신 관음태교법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방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 유대민족, 이들을 있게 한 하나의 소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못지않은 유대 어머니들의 자식사랑은 과학적 태아 교육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지극 정성은 영유아기를 거쳐 토라와 탈무드를 읽는 소년기의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태교를 포함한 유대의 체계적인 교육 전통이 인재의 보고(寶庫), 강한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칼 막스, 프로이드 등과 같은 세계적 석학들은 유대 나라와 같은 태교 문화권에서 성장한 인재들입니다.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도 유대의 모델을 차용한다면 지금의 한계를 넘어 선진국이 되어 세계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태교입니다. 이에 현지사 관음태교원에서는 기존의 태교와는 차원이 다른 '타력의 관음태교'를 통해 자녀 교육의 신기원을 열어 보이려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를 위하여 관세음보살님께 예배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일 딸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이니, 이들은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리라."

4년 전 깊은 삼매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정법명왕불)을 뵙고 이 경전상의 말씀이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고 말씀하시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관음태교를 널리 보급할 것을 여러차례 부촉(咐囑)하셨단 말입니다. 재능개발 위주의 기존 태교법에 비하여 관음태교법이 가지는 탁월한 차별점은 이 몸의 바탕이 되는 영혼체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 태아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타력태교라는 점입니다. 관음태교로 관세음보살님의 절대적 위신력을 입게 되어 영혼체가 깨끗이 씻어지게 되면 아이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직 육체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아이의 업으로 인해 불구가 될 운명마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병이 없이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외모가 반듯한 아이, 총명하고 복덕을 갖추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현의 성품을 타고 태어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의 동량이 되어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임신 전 태교'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관음태교를 시작하십시오. 이미 임신 중이라도 혹은 이미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헌신과 열정을 단 100분의 1만이라도 나누어 관음태교에 투자한다면 자녀의 성장기간 내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짧은 기간의 태교가 여러분 자녀의 평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예비 · 영유아 부모를 위한 "관음태교"
제1기 수강생 모집요강

2. 수강자격 : 관음태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남녀(특히 미혼 · 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
3. 교육기간 : 2010년 12월 5일(일) ~ 2011년 1월 9일(일) 6주간
4. 교육시간 : 일요일 3시간 강의
5.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내 영산불교대학(2층)
6. 원서접수 : 11월 1일부터 현지사 춘천본사 033) 243-1787 팩스 033) 243-4371
현지사 대전분원 042) 525-5325 팩스 042) 522-5326
현지사 부산분원 051) 554-5150 팩스 051) 556-5150
7. 강의 주제 및 강사 :

- 정 규 수 업 -

◆관세음보살 보문품 공부, 및 관음태교 실습 〈관음태교법 교재 제공〉
-도현스님, 남전스님
◆신불교 사상 (관세음보살님의 실존하심과 위대한 위신력을 포함)
-일도스님 (영산불교대학 교학처장)
◆관음태교 이론 (불교학과 태교과학의 조화)
-혜운법사 (영산불교대학 교수)

- 특 강 -

◆관음태교사례(관음태교로 아기를낳은 어머니들의 체험담)
◆교정원장 혜명스님 특강
◆덕산스님 특강(영산불교대학 학장, 전직 외교관,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으로부터 MBE훈장 받음)
◆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윤윤수(의학박사)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김병기(부산 동의대학교 생물학과교수)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원종식(대구 도솔천한의원 원장)
◆산모건강체조 -이영미(창원병원 재활치료 팀장)

◆ 문 의 : 현지사 대전분원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부설 관음태교원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